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접수창구 은행까지 확대

16일부터 도내 9곳서도 특례보증 신청 · 접수 시작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병목현상 완화 전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의 신청·접수를 오는 16일부터 도내 9개 협약은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업무위탁 협약 및 담당자 간담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의 신청·접수를 16일부터 도내 9개 협약은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총 3조 1,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1조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지난 9일자 기준으로 2,485건이 접수되었으나, 접수건수 대비 21.7%인 540건만이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중기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지난 2월 21일부터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3명을 파견해 접수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업무가 급증해 기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접수창구만으로는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자체협약을 통해 9개 은행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전북중기청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9개 은행과 실무급 회의를 12일 긴급 개최해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은 은행에서 수행하고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의 세부적인 업무위탁 방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기부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은 당초 1천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0.7억까지 100% 전액보증하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으로 기존 시행지침을 변경해, 업력 1년미만의 초기기업과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신청금액 5천만원 이상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는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보증심사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최대 2주 이내로 단축될 예정으로 소상공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병목현상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위탁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대응 농업기술 정보서비스 강화

농진청, 포털 '농사로'에서 서비스 새로 구축
영농 시기별 농업기술정보 한 곳에 모아 제공
농업인교육 · 토양정보 · 농업기상정보 등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영농활동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농업기술 정보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진청은 우선 대표적 농업기술 포털 사이트 '농사로'(nongsaro.go.kr)에 '코로나19 함께 극복하는 농업'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영농 시기별 농업기술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주요 농작업, 병충해 진단과 방제, 생육관리 요령 등을 이달의 농업기술, 농업기술동영상, 주간농사정보, 온라인 교육(e-러닝)으로 세분화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노인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농업인건강 체조를 동영상(5종)으로 제작해 활용토록 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돕는 기능성 식량작물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음식정보를 알려주고 간단한 요리법도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 면역력에 좋은 원예특용작물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관리수칙도 찾아 볼 수 있다.

농진청은 농사로 이외에도 △농업인교육(hrd.rda.go.kr) △토양정보('흙토람', soil.rda.go.kr) △농업기상정보(weather.rda.go.kr) △농약정보(pis.rda.go.kr) △병해충예찰정보(ncpms.rda.go.kr) △축산농장관리('축사로', chuksaro.nias.go.kr) 등을 통해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농사로' 방문자 수는 연 평균 64%씩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접속 비율도 연 평균 45% 정도 증가하여 현재 전체 방문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화나 방문에 의한 농업기술 상담 민원은 매년 10% 내외로 감소하고 있어 지능정보화시대 농업기술 보급방식의 변화를 반증하고 있다.

농진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오병택 과장은 "농업인과 직접 접촉해 농업기술을 지원할 수 없어 생기는 정보부족 공백을 농업기술 정보서비스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업·농촌 현장 어디에서나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2일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전북애향장학재단에서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시길'

전은,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0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2일 전주시 경원동에 위치한 전북애향장학재단(이사장 임병찬)에서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우수한 수능성적을 거둔 도내 출신 대학진학예정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에 1992년부터 올해까지 29년째 매년 5,000만원씩 총 14억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했으며,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2010년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중·고등학생 및 만학도를 위한 장학금 전달,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3D 프린터 지원 및 모델링 경진대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한은 "금융시장, 사스·메르스 때보다 회복 더뎌"

국내 금융시장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등 전염병 발생 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확산세와 높은 불확실성으로 시장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진 탓이다.

12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3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장기금리(국고채 10년물)가 모두 큰 폭 하락했다.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반응 정도는 더 민감하고, 회복속도는 더디다는 분석이다.

2003년 4월 사스 2차 확산 시기 당시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회복세를 되찾았고,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때에도 각 2거래일, 12거래일 등 모두 보름 이내에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속도는 최대 하락시점에서 직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소요된 기간이다.

국고채 금리도 사스 1차(9거래일), 신종플루(3거래일), 메르스(13거래일) 등 사스 2차(2개월 이상) 때를 제외하고는 13거래일 만에 원래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이달 들어서도 주가와 장기금리 모두 직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의 세계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나라 경제와의 연관성 등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영향"이라며 "코로나19로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1월2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모두 5조400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이달 들어서도 9일까지 3조3000억원을 팔아치웠다. 모두 9조원 가까이 빠져나간 셈이다. 다만 안전자산 쏠림 등으로 외국인의 현물 채권투자는 지난달말까지 3조7000억원 확대됐다. 회사채 시장은 신용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하는 데에 그쳐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뉴시스

'해외 입국 제한, 수출에 악영향'

수출중기 70.8%가 응답… 국가별로 일본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국제한 조치 등에 따른 수출 영향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악화될 것(70.8%)이라고 답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대한 수출영향(81.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78.2%), 베트남(71.9%), 미국(63.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복수응답)는 '해외전시회 취소 등으로 수주기회 축소'(73.8%), '입국금지로 해당 국가 내 영업활동 제한'(6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애로로 인한 계약 취소'(18.6%),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15.4%)가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40.1%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대비 수출액이 10~3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10%미만'(34.9%), '30~50%'(15.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해외 입국제한 지속 시 감내할 수 있는 기간으로 1~3개월(35.9%), 3~6개월(34.3%), 6개월~1년(10.3%), 1개월 이내(9.9%), 1년 이상(9.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1%)은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기존 거래처 관리강화'(44.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온라인 등 비대면 마케팅 강화'(32.7%), '대체 시장 발굴'(26.9%), '별도 대응방안 없음'(18.3%), '임금 삭감, 무급휴직 등 긴축 경영'(17.3%), '폐업 및 구조조정'(6.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정부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수출 피해 기업 우대 금융 지원'(42.9%)과 '관세 납부유예 등 조세 혜택'(37.8%) 순으로 응답하여 수출 피해로 인한 자금압박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등 교역환경이 악화되어 수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버팀목인 만큼 정부에서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대구 · 경북에 '사랑의 반찬' 보내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반찬을 보내 사태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농협은 12일 지역본부에서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노조 위원장, 농주모·고주모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랑의 반찬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

이 날 사랑의 반찬은 제철농산물과 돼지고기를 주 메뉴로 한 파김치, 돈육·메추리알 장조림, 멸치 견과볶음 등 900g 반찬통 1,206개를 고향주부·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본부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정성을 더했다. 사랑의 반찬은 경북지역 여성단체를 등을 통해 당일부터 취약계층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과기부, 내년 24조 연구개발 예산안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조원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밑그림을 공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청은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과기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사흘 뒤인 오는 15일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를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부는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투자방향은 정부 R&D 주요 목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기여, 삶의 질 개선 등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혁신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②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③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대 분야를 설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R&D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혁신 주체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에 R&D 지원을 내년 2조5200억원으로 올해(2조300억원)보다 49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인프라(DNA)와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전(全) 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종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단·백신·치료제 등의 적기 지원 및 대응 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뉴시스

식품연, 코로나19 위기극복 대구 · 경북 주민에 물품 기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주민들을 위해 햅쌀떡국 등 지원물품 1만개를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복지기관에 기부했다.

식품(연)은 이날 대구광역시 본리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햅쌀떡국 250상자(4,000식), 쌀국수 200상자(6,000식) 등 1천여만 원의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식품(연) 박동준 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주민 및 복지기관 종사자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번 지원물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김윤상 기자